



2026. 8. 25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빨라진 투자금 이동... 요구불예금 회전을 10년반 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VyAcXP>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4.1회로, 지난 2015년 12월(24.6회)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
중시 변동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단기 투자 대기자금이 은행과 투자처를 오가며 자금 이동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

원화값 두달새 166원 급등... 금융지주 생산적금융 실탄 쏘

매일경제

<https://zrr.kr/8RPAVI>

최근 원화값 급등으로 주요 금융지주의 자본비용 관리에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금융권의 자본 부담을 덜어주면서 여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까지 늘리는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셈

금리 뿔자 손실도 뒀네... 은행 '채권 얇아'

머니투데이

<https://zrr.kr/c6ZhKT>

상반기 금리상승으로 은행들의 채권 운용이익이 크게 악화... 하반기에도 국내외 채권시장의 변동성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7%까지 뿔 것이란 전망
이에 은행권은 현물 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단기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등 금리상승 리스크 대응에 나설 방침

규제 풀린 중금리대출, 한달새 1.4만명 몰려

한국경제

<https://zrr.kr/3ab8rT>

6개 저축은행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선보인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260억원을 대출했으며 대출자는 1만4300명
저축은행뿐 아니라 카드사도 같은 상품을 출시하고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판매액이 확 늘어날 것으로 전망

상위 5개 증권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수료 수익 70% 독식

국민일보

<https://zrr.kr/Am0uoE>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증권사가 벌어들인 위탁매매수수료의 약 70%가 상위 5개 대형 증권사에 집중
고위험 상품에 뛰어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증권사만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

레버리지 빚장 걸자 돈맥경화 풀렸다...코스닥 더 키워줄 '승강제' 대기

머니투데이

<https://zrr.kr/GAiof3>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규제가 도입된 이후 자금 흐름이 유연해지며 코스닥 시장 관련 ETF로 최근 자금유입이 확대
증권업계는 다음달에 공개되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 내용이 자금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유효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도수치료 목자 비급여 '다른 치료' 3배 급증...풍선효과 뚜렷

뉴스1

<https://zrr.kr/TvTXxK>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뀐 이후 지난달 초 7개 손보사의 8영업일간 일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은 6월 초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
보험사는 풍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봤지만, 과잉진료라는 편견 아래에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론도 제기

7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84.8%...지난해보다 0.8%p ↑

데일리안

<https://zrr.kr/WJsl8k>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p 상승, 7월 손해율은 86.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p 하락
8월 들어 경남·거제·통영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와 빗길 사고가 발생한 데다 정비수가 등 원가 상승 요인도 남아 있어 향후 손해율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임박...이억원 "속도낼 것"

이데일리

<https://zrr.kr/dYmd3g>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며 내달 당장 통합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
이억원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며 "정부안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

업비트 운영 두나무, 나스닥 상장 추진

조선일보

<https://zrr.kr/m7kyff>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위한 실무 작업을 완료
두나무를 국내에 상장 시 중폭 상장에 해당하고, 두나무 주주는 네이퍼퍼이낸셜 지분을 비상장 상태로 두면 의결권이 없고 현금화 가능성도 크게 떨어져 상장이란 '탈출구'가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